



스물일곱번째 이야기

코로나도 멈출 수 없는 사랑

[2020 선교사 사역현장 ⑧]



주님의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을 향해 바다를 건너 말씀을 전하며 기쁨과 열정으로 사랑의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계신 나문채(나 도카치) 선교사님과 주미경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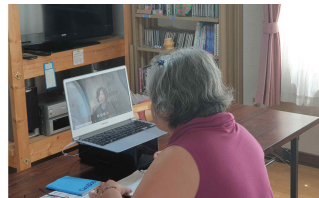
2016년부터 BEE 세미나를 받아 오신 목사님 중 3분(다케다, 오자키, 준코)이 5과목을 수료하였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가지고 FTS를 계획하고 실행하던 중, 2월 중순 잠시 주미경 선교사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때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에 들어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가족은 말렸지만 주미경 선교사를 한국에 두고 혼자 2월 28일 치토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현지 목사님들과 한 약속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치토세 공항에서 공항버스를 타고 오바히로로 오는 중, 홋카이도 도지사의 코로나19 관련 긴급선언이 발표되자, 직항편이 없어지고 모든 출입국 금지로 주미경 선교사와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은혜로 일본선교는 계속되었습니다.

대면 일대일 사역이 어려워지고, 주미경 선교사도 못 들어오는 상황에서 LINE과 Skype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복음교회에서 상하반기 각 2명씩이 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위의 세 분의 목회자가 3월 FTS를 수료하고, 5-6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같이 나누어 인도하였습니다.



Skype를 통한 일대일



갈라디아서 세미나

그리고 드디어 10월부터 다케다 목사님이 8명의 성도들과 갈라디아서 세미나를 시작하여 재생산에 들어갑니다. 연약했던 복음교회가 저자양육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좋은 모델이 되길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3-5월에는 집합 예배가 어려워지자 사용하지 않던 페이스북 홈피를 재구성하여 사전 녹화하여 예배 영상을 올렸더니 100명 이상이 시청하고 있으며, 지금은 현장 예배와 병행하여 영상을 올리니 전도와 예배를 더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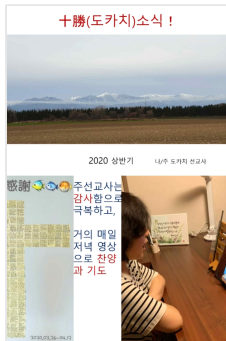
큐티 나눔

2006년부터 LINE과 카톡을 통해 30여 명의 일본인들과 큐티를 나누어왔습니다. 그러나 보안상 사용하지 않던 페이스북을 3월부터 활성화했더니, 일본의 목회자, 성도 그리고 비신자 등 500명 이상이 친구가 되어 공유하고 있습니다. 10여 명은 큐티 말씀을 적용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관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일본에서 접촉을 위한 좋은 통로가 될 것 같습니다.

온누리교회 이천선교본부에서 선교사들에게 유튜브를 활용한 선교 보고와 선교 활동 그리고 Zoom이나 미팅을 통한 세미나 등 제자 훈련 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영상이나 인터넷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이 나이에 어렵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영상 선교 보고도 만들어 보고, Zoom을 통한 일본어 일대일, BEE 세미나를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 조금씩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제자훈련을 확장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아침 새벽예배부터 출근 일본인들과 교제하게 되니 이제는 일본어가 부쩍 늘어 일본어 사역이 자연스러워지고 힘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기도로 동역해주시는 BEE 가족 또한 힘이 됩니다.



선교보고 영상



[글쓰는 나 도카치 선교사]



BEE에서 수년간 다수의 세미나를 인도하며 헌신적으로 재생산에 힘썼으며, 온누리교회 일본어 예배를 섬겼다. 은퇴 이후 아내 주미경 선교사와 함께 일본 선교사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있다.

[정리 및 편집: 최선]

선교지 JAPAN

[일본 주거문화-다다미]

일본 집의 바닥 재료로 쓰이는 다다미는 그 어원이 '다타무(접다)'로 옛날에는 방 전체에 깔아 놓는 형식이 아니라 접어두었다가 손님들이 왔을 때 꺼내서 펼쳐 쓰는 용도였다. 습기를 잡아주는 특징이 있어서 습기가 많은 일본에 널리 보급되었다. 지금은 다다미가 없는 집도 많지만, 방이 여러 개 있는 집에서는 방 하나를 다다미방으로 만들어 접객용 방으로 사용하곤 한다.

BEE 소식

- 2020년 하나님의 “준비하라”라는 음성에 따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준비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암4:12).”
- 11월 7일(토) 한동홀에서 BEE 토요일모임이 재개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리로 인해 A조 기도테이블은 대면으로, B조 기도테이블은 영상으로 기도합니다. On/Off Line으로 선교지를 향한 기도는 계속됩니다.



오프라인 기도모임

온라인 기도모임